



## 미입회 회원 끌어안기' 시도지부 합심 총무위·총무이사 연석회의

미입회 회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은 지난 11월 22일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성우) 및 총무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미입회 회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처음으로 총무위원회를 시도지부의 총무이사들로 구성, 총무위원회가 총무이사 연석회의와 같도록 해 치과계의 크고 작은 사안들을 지부와 발 빠르게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성우 총무이사는 "지부와의 소통, 계층과의 소통 등 소통이 이번 집행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라며 "총무위원회를 총무이사 연석회의로 한 것도 이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또한 젊은 치과의사들을 최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총무위의 역할이 크다. 이런 사안들을 중심으로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총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할 일이 많고, 고민도 많고 부지런해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다. 총무이사를 맡아 그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분에게 회원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치과계가 위기라는 인상을 받는데 위기가 곧 기회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현상이 있듯이 앞에 닥친 문제를 잘 극복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입회 회원,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을 효율적으로 제도권으로 영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총무위는 앞으로 ▲시도지부별로 차이가 나는 지부가입 요건 통일 ▲회원 가입을 위한 방법 옹이 ▲개업도 하지 못하고 폐이닥터로도 정착하지 못하는 단기간 폐이닥터에 대해서는 지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회로 가입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 치협 홈페이지 '반응형 웹'으로 회원 참여 "쉽고 빠르게" 정통위, 새 홈페이지 시연

"집행부가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모토로 걸었던 만큼, 홈페이지는 협회 회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쉽게 접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한다."

지난 11월 2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회 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장영준 부회장과 김범준 정보통신이사는 협회 새 홈페이지의 방향을 '회원 편의 증진'과 '적극적 소통'으로 설명했다.

지난 7월 초도회의 이후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온 정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홈페이지의 시안을 공개하고, 각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홈페이지의 복잡한 기능들을 정리하고, 대국민용과 회원용으로 이원화해 단순화했다는 것과 최근 추세인 '반응형 웹'을 채택해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구현한다는 점이다.

정통위 측과 개발 업무를 협업해 온 이용진 ㈜알파코 팀장은

"그래픽 시스템을 통해 치협의 브랜드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반응형 웹 추구, 웹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유저의 편익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 시안 등을 보면, 메인공간을 확장해 디자인의 주목도를 높였고, 이 공간을 통해 치협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의 홍보가 가능해졌다.

또, ▲치과건강상식 ▲균잡 KDA ▲보수교육센터(회원용) 등 바로그기 영역을 단순하게 배치해 각 기능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장영준 부회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은 협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라며 "위원들이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이사는 "치협에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메인창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내부 콘텐츠를 보강해서 재미와 유익성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레지던트 선발 정원 355명 실제 선발인원은 300명 안팎 예상

전국 51개 수련치과병원의 내년도 레지던트 선발정원이 355명으로 결정됐다.

치과의사전문직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준·이하 전문의운영위)는 지난 11월 1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201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인원을 이 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전공의 선발인원은 51개 수련치과병원에서 총 363명을 신청했으며, 전공의 배정공식에 따라 355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2014년도 레지던트 선발정원 363명 보다 8명 줄어든 수치다.

실제 전공의 모집 시에는 미달 기관들이 발생함에 따라 예년평균 전체 정원의 80% 수준이 선발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5년도 전공의 선발인원은 3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5년도 인턴 선발정원은 전국 33개 수련치과병원에서 375

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문의운영위의 이 같은 결정사항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12월 초 공식 통보된다.

한편, 2016년도 전공의 선발부터는 새로운 배정원칙이 적용된다.

대학병원과 일반병원 구분 없이 전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숫자만 고려하며,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존과 등은  $N=X-1$ (N:전공의 배정 숫자, X: 전속지도전문의 숫자)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은  $N=X$ 가 적용된다.

장영준 전문의운영위 위원장은 “전공의 선발정원 결정은 대한민국 치과계의 발전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여러 결정에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전국 치대·치전원 학생학술경연 정다슬·이학균 강릉원주치대팀 대상

강릉원주치대 팀(지도교수 이시영)의 정다슬, 이학균 학생이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내년 미국치과의사협회(ADA) 학술대회 참관 및 발표 기회가 주어지며 관련 경비가 지원된다.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한 제16회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에서 열렸다.

이번 학생학술대회에는 전국 11개 치대 및 치전원에서 총 18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2팀 등 총 6개 팀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대상을 받은 강릉원주치대 팀(지도교수 이시영)의 정다슬, 이학균 학생은 ‘테트라사이클린 내성 구강연쇄구균의 tet(M) 유전자 다양성’을 주제로 치대 내의 테트라사이클린 내성 구강 연쇄구균의 tet(M) 유전자 다양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상은 서울대치의학대학원 팀(지도교수 서덕규)의 이찬주, 박수진, 한우람 학생이 차지했으며, 은상은 경희대치의학전문대학원 팀(지도교수 권일근)의 이애나, 박세웅, 조연주 학생과 전남치대 팀(지도교수 고정태)의 김유리, 허성웅 학생에게 돌아갔다. 또 동상은 단국치대 팀(지도교수 백동헌)의 전영우 학생, 원광치대 팀(지도교수 배지명)의 신경수 학생이 받았다.

이재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장은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은 단순한 기술과 지식 습득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우리 사회 리더”라며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동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좌절과 시련을 겪기보다는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학생학술경연대회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경험을 쌓은 여러분을 통해 대한민국 치과계 미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